

국가별 동향



미 국

“하나 남은 닭다리 왜 먹어?” 친구 살해한 30대 남성



닭다리 앞에는 우정도 없었다. 마지막 하나 남은 ‘닭다리’를 먹었다는 이유로 룸메이트이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죽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시 경찰은 다윈 곤잘레스(3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레이날도 리베라(38)를 붙잡아 살인혐의로 조사중이다. 비극적인 사건은 룸메이트인 레이날도와 다윈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도중 발생했다. 원흉은 치킨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지막 닭다리를 친구 다윈이 집어먹는 모습을 본 레이날도가 따지기 시작하면서 벌어졌다. 옥신각신 말다툼은 금세 몸싸움으로 번졌고, 흥분한 레이날도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다윈의 가슴을 찔렀다. 다윈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레이날도는 도주했다가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게 자신이 친구를 죽였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닭

은 살인 사건을 봤지만 닭다리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처음 봤다”며 “너무 비극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중 국

닭날개 튀김...세계유산 등록되는 공자가문 요리



공자(孔子) 가문의 요리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이다. 공자 후손들이 개발하고 발전시킨 조리법과 그 관련 문화가 대상이다. 신화통신은 공자의 고향인 산둥(山東)성 취푸(曲阜)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 음식 연구 콘퍼런스에서 ‘연성공부(衍聖公府)’의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조리법 표준화 위원회가 발족했다고 전했다. 현재 연성공부 연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요리는 각종 훈제 생선과 닭날개 튀김, 삭스핀 요리, 돼지고기 튀김, 전복과 새우 등 10여

종의 해산물 복합 요리, 다시마 요리 등이다. 이들 요리는 대부분 공자와 그 후손 제사에 사용됐으며 조리엔 정성을 기울이고 식재료 선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중앙일보]



독 일

‘수컷 병아리’ 탄생 순간 살처분...독일, 세계 최초 금지

독일 정부가 세계 양계업계에서 묵인되고 있는 ‘수컷아리 살처분’ 관행에 최초로 제동을 걸고 나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수컷아리는 생육 기간이 암컷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길기 때문에 고기 판매를 통한 수익을 내기 힘들고, 추후 암탉처럼 알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는다. 이러한 관행은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일에서만 한 해 4,500만 마리의 수컷아리들이 살처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수컷아리들은 대부분 대형 분쇄기에 넣어 죽임을 당하는 등 그 처분 방법이 잔혹한 경우가 많아 동물보호단체들은 그동안 해당 문제에 대한 비판을 제기해 왔다. 독일 정부가 이번 결정을 내린 배경에도 역시 여러 동물보호단체들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독일 정부는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기존 관행을 대체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독일은 계란 내부에서 병아리의 신체가 온전히 발달하기 이전에 미리 그 성별을 감별해내는 기술을 개발해

냈으며, 향후 이 기술을 점진적으로 독일 농가들에 도입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술을 통해 수컷으로 판명된 계란들은 부화 장치에서 제거되며 암컷 계란들만 장치에 남겨두게 된다. 이렇게 부화 장치에서 제외된 수컷 계란들은 폐기하는 대신 다양한 다른 식재품에 사용된다. 세계 각지 동물보호운동가들은 독일 정부의 이번 움직임에 찬성의 뜻을 보내면서, 이번 정책 발표가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독일 농업부장관 크리스티안 슈미트는 2016년 말까지 이번 기술이 독일 전역에 완전히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 실시 이후 독일의 계란 가격은 개당 20원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서울신문]



일 본

닭다리살, 가슴살 가격 상승

닭다리살과 가슴살 가격이 1,000엔대로 올랐다. 올초 닭다리 674엔, 가슴살 327엔이었으나 연말수급의 물품 부족의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73엔 수준 높아졌다. 가계 소비동향도 가격 상승에 순응의 경향도 보이지만 최근의 소비동향 조사결과(9월)에 따르면 식품의 상승 등에 소비자 심리는 2개월 만에 악화, 전망도 가격상승세가 지속하는 관점에서 절망 지향이 강해진 면도 볼 수 있다. [일본도쿄식조신문] **양계**